

전통 초가의 현대적 적용 사례에 관한 연구

-식음료 판매 공간의 실내구성요소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Modern Adaptation of Traditional Thatched Roof House

-Special Reference to Interior Elements of Restaurants and Cafes-

경희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전공
교수 오혜경

Major in Housing and Interior Design, Kyunghee Univ.
Professor : Oh, Hye-Kyu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연구의 방법 | 참고문헌 |
| III. 현대적 적용사례의 조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 about the modern adaptation of interior elements(floor, wall, ceiling, door & window) in traditional thatched roof house. The examined objects were interior space of 36 restaurants and cafes in Seoul and Kyung-Ki Do area.

1. Floor: Jang-pan was mostly alternated with linolium which has Jang-pan pattern. Wumul-maru was adapted from the original and Jang-maru was alternated with wood or linolium which has western style Jang-maru pattern. Mud was adapted from the original or alternated with slate stone or rough finish cement.
2. Wall: Rice paper was alternated with rice paper book witch has chinese character, paper for parcels or modern wall paper. Plaster-white paint or white handy coat. Mud-mud color paint or bamboo stick witch located in the mud wall original. Log-half cut log. Wooden board-without cross bar or irregular form.
3. Ceiling: Yondung-Chongang was mostly adapted from the original and Banja-Chonjang was alternated with rice paper book which has Chinese character or modern wall paper.
4. Door and Window: Ttisal-mun and Panjang-mun were adapted from the original. Wan and A' character door and window were simplified character itself.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한 나라의 문화를 보면 그 나라의 독특한 전통이 있고 이들 전통은 오랜 역사의 부침 속에 변화, 발전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한편 변화, 발전해 나갈 것이다. 원시 주거의 움집, 귀틀집 등에서 발생한 우리의 전통 주택도 이와 같은 과정을 겪어 조선시대의 상류, 중류, 서민주택까지 발전해 왔으며 지난 세기의 급격한 서구화를 겪는 과정에서는 전통의 단절이라는 위기에까지 몰리는 수난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전통이란 쉽게 지워 버릴 수 없는 한 민족의 역사로서 그 비중이 적어져 가거나 생활양식에 따라 변화해 갈 지언정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조선 후기 이후 우리의 전통 주택이 지난 한 세기 수난의 역사 속에서도 소멸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증거를 삼을 수 있으며 오히려 요즈음에 들어 전통 주택은 그 가치와 효용성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세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 데에 주목을 받고 있다. 따라서 다방면에서 전통 주택의 현대적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상류 주택뿐만 아니라 가난한 서민이나 농부들이 살던 민가의 가치 또한 재고되고 있다. 민가는 일반적으로 초가를 일컬으며 나무, 흙, 막돌 등을 이용하여 지은 매우 소박한 주택을 말하는데 이들은 일제시대는 물론 1950년, 60년대를 거쳐 79년에도 살림집으로 지어진 예가 있을 정도로 지속되어져 왔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근래에 들어 지붕을 이엉으로 엮은 전통 초가를 살림집으로 새로 짓는 예는 드물며 건강상의 이점으로 벽이나 온돌 등에 황토를 이용하는 등 지붕 외의 부분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주거 공간에는 매우 소극적인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상업공간-그 중에서도 식음료 판매공간에는 우리의 전통 초가가 상당수 적용되고 있다. 특히 전통차를 판매하거나 민속주 또는 전통 음식을 판매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도심의 한복판이나 한적한 교외 등, 장소를 불문하고

많은 수가 생겨나고 또 소멸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 초가의 재현 또는 현대적 적용은 비록 식음료 판매공간에 치우쳐 있긴 하나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실제 지금까지의 연구는 초가 자체에 대한 건축구조 및 건축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결과는 매우 팔목한 만하다. 그러나 초가는 초가의 원형 자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적용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전통초가 실내구성요소의 마감 방식 및 재료는 공간의 성격을 주도하고 있는 요소로 이들의 사용에 따라 공간의 이미지는 다양하게 변화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현재 한국의 전통 초가가 식음료 판매공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실태를 파악해 보는 연구는 앞으로 우리의 전통 초가가 어떠한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연구의 목적 및 내용

본 연구는 지붕을 전통 초가의 형식으로 구성한 식음료 판매공간을 대상으로 각 실내구성요소의 마감 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에 대해 현장 방문 조사를 하고 적용된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며 그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식음료 판매공간에 적용된 전통 초가의 바닥 마감 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경향을 파악한다.
- (2) 식음료 판매공간에 적용된 전통 초가의 벽 마감 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경향을 파악한다.
- (3) 식음료 판매공간에 적용된 전통 초가의 천장 마감 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경향을 파악한다.
- (4) 식음료 판매공간에 적용된 전통 초가의 창호 문양 및 원형도입 여부에 관해 조사하고 그 경향을 파악한다.

II. 연구의 방법

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한국의 민가 중 초가의 형식으로 지어진 식음료 판매공간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민가의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단독 건물에 초가의 지붕이 없으면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제외된 경우는 현대식 빌딩내의 한층 또는 일부분에 위치하는 예로, 많은 수가 이에 해당됨으로서 연구대상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이렇게 초가지붕에 단독건물을 고집한 이유는 이들이 전통초가에 보다 충실하게 디자인되었으리라는 가정에서였다. 즉, 지붕이 초가로 되어 있는 식음료 판매공간은 그 실내도 대부분 전통 초가의 이미지로 구성되어졌으리라는 생각에서였으며 이는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해 있는 5곳의 식음료 판매공간에 대한 예비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연구의 대상은 36사례로 다음과 같다.

- (1) 서울지역(솔피마을, 도읍지, 몽촌, 시골집, 초가 등심)
- (2) 경기도 장흥지역(교외선, 섬, 청솔, 까만 굴뚝)
- (3) 경기도 일산지역(경의선, 민속촌, 초가등지, 술내음)
- (4) 경기도 미사리 지역(도시너머, 초가, 몽주르)
- (5) 경기도 퇴촌면 지역(교와, 초가1, 초가2, 시골밥상, 소유네, 통나무집)
- (6) 경기도 금남리 지역(예담, 흙, 토방사랑, 짚풀1, 짚풀2, 초가집, 햇빛촌, 풀내음)
- (7) 경기도 서종면 지역(산모퉁이, 초가집, 토방)
- (8) 기타지역 (옛날의 금잔디, 콩쥐팥쥐, 토가)

이들 각 공간은 주건물 외에 부속 건물이 달려 있고 이 또한 식음료 판매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 이들 중 본 건물과 디자인이 같은 부속 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하였고 디자인이 다른 경우에는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하여 포함시켰다. 그 결과 2곳이 이에 해당됨으로써 총 34곳의 판매공간에 36사례가 분석 대상이 되었다.

2. 조사의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조사연구로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공간의 디자인 실태를 조사하는 현장방문조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먼저 지붕이 초가로 이어져 있느냐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작되었으며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행되었다. 우선 외부의 지붕, 벽, 문, 창문 등의 형태 및 마감 재료들을 기록하고 변형여부 및 세부적 사항을 체크하였으며 실내로 들어와서 바닥, 벽, 천장, 문 및 창문의 구조, 형태 및 마감재료 등을 기록하고 역시 변형 여부 및 세부적 사항을 체크하면서 이에 관한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때 외부와 내부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과 창문은 내부에 포함시켰다. 이들 조사된 자료들의 원형 및 변형도입 여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판별하였다.

1) 원형 및 변형의 판별

- (1) 실내구성요소의 원형에 대한 분석은 초가에 관한 서적 및 사진(윤원태, 1998)을 참조하여 판별하였다.
- (2) 각 요소의 변형여부에 대한 분석은 상류 주택 실내구성요소의 현대적 계승에서 변형여부를 연구한 오혜경, 성미현(1998)의 판별기준을 중심으로 하고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 공간의 실내구성요소들을 분석한 후 삭제, 첨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2) 공간별 각 실의 구분

일반적으로 양식을 판매하는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은 신발을 벗지 않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음에 비해 한식을 판매하는 공간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공간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 공간에서 각 공간별로 적용된 결과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 음식을 먹는 방과 마루 그리고 신발을 신고 의자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조사대상이 36사례로 분

〈표 1〉 변형판별 기준의 예

바 닥	장판지바닥	장판지 무늬로 된 비닐계 재료일 때
	우물마루바닥	우물마루 짜임의 형태가 변형되었을 때
	장마루바닥	장마루 짜임의 형태가 변형되었을 때 장마루 무늬로 된 비닐계 재료일 때
	흙바닥	시멘트, 돌 등 흙이 아닌 재료가 쓰였을 때
벽	종이벽	일반벽지, 소포지, 고서적지 등이 쓰였을 때
	회 벽	흰색페인트를 칠했거나 헨다코트 등이 쓰였을 때
	흙 벽	외대가 마감재로 쓰였을 때 황토색 페인트를 썼을 때
	통나무벽	반으로 쪼갠 통나무가 쓰였을 때
	판장벽	얇게 썬 판자를 가로 또는 세로로 붙였을 때
천장	연등천장	보가 없이 종도리와 서까래만 있을 때 각 부재의 굵기가 원형과 다를 때
	반자천장	반자 천장이 경사져 있을 때 종이반자의 재료가 일반벽지, 소포지, 고서적지 등이었을 때 평반자 짜임의 형태가 변형되었을 때
창과문		창살의 모양이 간소화되거나 창호지 대신 유리로 마감하였을 때

석할 변수가 다양하지 않았고 각 사례의 적용 내용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였고 따라서 분석방법은 단순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다.

III. 현대적 적용사례의 조사결과

1. 조사 대상 공간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 공간으로 선정된 총 36개의 식음료 판매공간은 상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부분 한국의 토속 음식이나 민속주 또는 전통 차를 판매하는 곳으로 서울 시내에 위치한 공간이 5곳이었고 경기도 지역에 위치한 공간이 31곳이었다.

이들 초가의 지붕 구조를 보면 7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슬래브 또는 기와를 얹은 후 그 위에 다시 이엉을 얹어 겉모습만 초가로 느껴지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다만 이엉의 두께가 두껍게 올려졌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가 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예외는 50년 된 초가를 음식점으로 개조

한 경기도 양평 부근의 '초가'로 본 건물 지붕의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서울 서초동의 '초가 등심'은 시골의 초가를 그대로 옮겨와 다시 재구성한 예로서 지붕의 구조가 비교적 충실히 재현되고 있었으며 경기도 금남리 지역의 '짚풀'을 비롯한 4곳은 현대에 지어졌지만 비교적 충실히 재현되고 있었다.

이들 36개 식음료 판매 공간의 실내는 예비조사에서 이미 확인한 후 본 조사에 착수하기도 하여 예상이 되긴 하였으나 역시 모든 초가지붕을 가진 식음료 판매 공간의 실내는 전통 초가의 원형을 상당부분 고수하거나 이를 변형하여 현대화시킴으로써 다양화되었는데 원형을 고수한 식음료 공간은 물론 상당부분을 현대화시킨 식음료 공간에서도 전통 초가의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많았다.

2. 실내구성요소의 적용 내용

1) 바닥의 마감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

전통민가의 바닥은 상류 주택이나 서민 주택을

〈표 2〉 바닥의 마감장식 및 원형도입여부

구 성 요 소	마감방식	원형도입			변형도입			계
		홀	방	마루	홀	방	마루	
바 다	장판지바닥		3		1	15	2	21
	마루바닥	우물마루			4		2	6
		장마루	1	1	1	3	5	2
	흙바닥	3			15			18

막론하고 한국전통주택의 특징인 온돌, 즉 방과 마루 그리고 흙바닥으로 되어 있다(주남철,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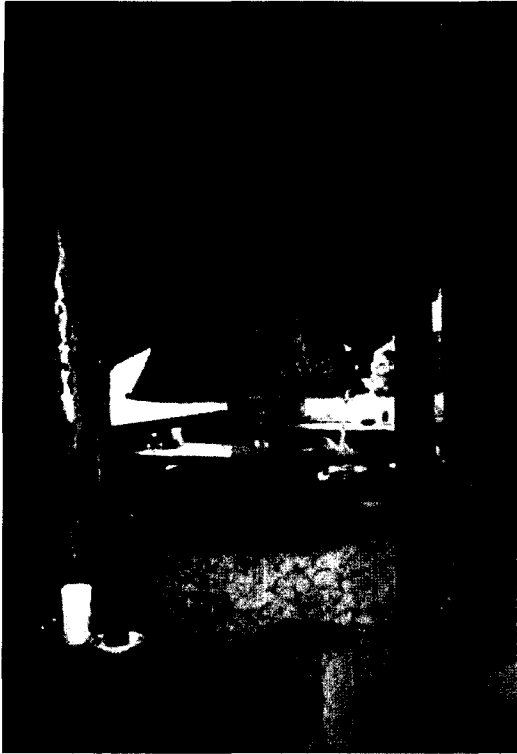
조사대상 식음료 판매공간에서 바닥은 마루 바닥 20사례, 장판지 바닥 21사례, 흙바닥 18사례가 나타났다.〈표 2〉 그 중 장판지 바닥은 주로 방에 한정된 것에 비해 마루 바닥은 홀과 방, 그리고 홀에서 방으로 연결되는 복도나 뒷마루의 형식을 가진 공간 등 다양한 공간에서 폭넓게 적용되고 있었다. 이 중 장판지 바닥이 적용된 공간에서 전통적 온돌인 아궁이에 직접 불을 때서 사용할 수 있는 온돌은 2곳에서 나타났고, 그 외에는 변형된 사례로 혹 아궁이가 있는 곳도 있었으나 장식적으로 쓰인 경우였다. 전통적으로 우리의 난방방식은 온돌이 대표적이거나 보조적 등화구로 함경도 곁집의 '등덕'와 제주도의 '봉덕' 그리고 산간지방의 '고쿨'과 '화투' 등이 있었다. 이중 고쿨은 방귀통이의 방바닥에서 30-40cm 쯤 되는 높이에 가로 20cm가량의 판석을 붙이고 그 위로 연통을 세운 것이다. 판석 주위에는 4각형의 아궁이를 만들었으며 위에는 연기 빠질 구멍을 뚫었다. 고쿨 불은 방안의 온기를 넣어 주어 조명과 난방의 구실을 함께 하는 셈이다(김광언, 1994). 이와 같은 고쿨을 일견 서양의 벽난로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설비라 본다면 조사대상공간에 나타난 고쿨 또는 벽난로는 12사례로 무리가 있긴 하지만 고쿨의 형태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형식이 7사례, 서양식 벽난로에 가깝다고 여겨지는 형식이 5사례였다. 이중 고쿨의 형식으로 된 벽난로는 흙으로 빚으면서 모서리는 없애 각이 지지 않은 형태로 벽에 붙어있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사진 1). 서양식 벽난로 형식은 일견 원으로 된 우물의 화구에 원뿔형의 연통이 있는 형태(사진 2)로 이 또한 우리의 우물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라는 공통점이 있는 한편 벽에 붙어 있지 않고 홀의 가운데에 독립되어 있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이들은 벽의 일부분이므로 벽에서 언급되어야 하나 난방방식의 일부분이기도 하므로 바닥에서 언급하였다.

온돌은 방에서 나타나고 있었는데 이의 바닥 마감재료를 보면 전통방식인 종이 장판지를 쓴 경우



〈사진 1〉 경기도 퇴촌면 초가 2



〈사진 2〉 경기도 상흥 까만굴독

가 3사례가 있었고 나머지는 장판지 무늬의 비닐계 마감재가 사용됨으로써 거의 대부분 손쉬운 비닐 마감재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사 대상 중 2 곳에서는 장판 문양도 아닌 현대적 기하학문양의 일반 비닐계 바닥재가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조가의 이미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재료의 사용이므로 지양하여야 할 것이다.

마루는 우물마루가 6사례, 장마루가 13사례로 이중 우물마루는 전부 마루에서만 나타났으며 그 짜임이 원형이거나 원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5사례였고 짜임은 원형이었으나 그 위에 불투명한 도료를 입혀 변형된 사례가 1사례였다.

따라서 우물마루는 대부분 전통적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그 적용의 근원을 보면 원래의 초가를 분해해 옮겨 재구성하였거나 원래의 초가를 개조해 식음료 판매공간화 한 경우는 물론 그대로 재현한 경우도 있었다. 우물마루는 장마루와는 달리

현대에 적용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짜임 방식으로 장마루나 장판지 등이 리놀리움으로 값싸게 상품화한 것에 비해 전혀 개발되고 있지 않은 마루 형식이라 여겨진다.

장마루는 총 13사례로 우물마루나 장판지 바닥이 각각 마루나 방에서만 사용되던 것에 비해 홀이나 방, 마루 등의 공간에 두루 적용되고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원형 도입, 즉 전통적 장마루가 쓰여진 곳은 홀과 방, 마루에서 각각 1사례씩 있었으며 변형도입이 된 곳은 홀에서 3사례, 방에서 5사례, 마루에서 2사례가 나타나고 있었다. 변형의 사례를 보면 홀에서는 전부 서양식 장마루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서양식 장마루는 1990년 이후 우리의 생활공간에 폭넓게 유행되고 있는 마루재로서 그 짜임이 전통 장마루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즉 장마루 짜임의 원형이 지그재그 방식임에 비해 계단형이거나 3장의 장마루가 한조를 이루어 짜여져 있다. 방에 쓰인 사례는 장마루의 재료가 리놀리움인 경우로 이 또한 서양식 장마루의 형태로 패턴화 되어 있었다. 따라서 장마루의 변형은 장마루 자체의 비례나 형태를 변형 시킨다기 보다는 전통적 장마루와 어느 정도 유사한 서양식 마루를 도입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식음료 판매공간에서 흙바닥은 흙을 다져서 반반히 한 전통 방식의 원형 도입이 3사례, 변형 도입이 15사례 있었다. 변형 도입은 시멘트로 약간 거칠게 마감한 시멘트 마감 7사례, 황토와 백시멘트 그리고 접착제를 반죽하여 마감한 방식이 5사례, 슬레이트석 마감 5사례, 타일마감 1사례로 모두 흙바닥의 변형이라 보기에는 재료 사용에 있어 무리가 있긴 하지만 흙바닥의 소박함이나 거친 이미지를 살려 보고자 선정된 재료라는 점에서 흙바닥의 변형이라 보았다. 특히 시멘트 바닥은 그 마감을 약간 거칠게 하였고 슬레이트석은 대리석이나 화강석과는 달리 재료 자체의 질감에 결이 있고 어두운 색이어서 조가의 이미지와 어느 정도 어울리므로 선정된 재료라 생각된다. 한가지 특이한 사실은 시멘트 바닥에 토기와 자기 조각들을 박아 마감한 방식으로 이 또한 거친 질감의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시도한 결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한편 타일

1사례는 황토색에 가까운 색의 약간 거친 질감의 타일로서 이 또한 어느 정도 초가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선택한 결과라 보여진다.

2) 벽의 마감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

전통민가의 벽은 계층을 막론하고 심벽 구조였다. 이의 구조는 기둥과 인방을 설치하고 이들 인방과 인방 사이에 증깃과 가시새를 지른후 외대를 엮는다. 이 위에 여물을 섞은 진흙을 입히고 종이나 회로 마감하기도 하였다(박영순외, 1998). 그러나 서민주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가에서는 흙과 돌로 벽체를 쌓을 때가 많으며 때로는 널빤지로 판장벽을 설치하기도 하였다(주남철, 1994). 한편 강원도 산간 지방에서는 귀틀집도 지어졌는데 이는 통나무를 우물정자 형태로 쌓고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의 틈을 진흙으로 막은 집을 말한다(윤원태, 1998).

조사 대상 식음료 판매공간에서의 벽은 종이벽 15사례, 회벽 8사례, 흙벽 24사례, 돌흙벽 1사례, 통나무벽 3사례, 판장벽 3사례가 나타났다.<표 3> 먼저 종이벽을 보면 전통의 흰 한지를 벽지로 써서 마감한 원형 도입의 경우는 7사례로 홀에서 1사례, 방에 6사례가 나타났다. 한지외의 종이로 마감한 변형 도입은 13사례가 나타났는데 방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었다. 한편 고서적, 즉 붓글씨가 쓰여 있는 한지로 마감한 경우가 7사례, 소포지와 같은 누런 갱지로 마감한 경우가 2사례가 있었고 일반 벽지가 4사례 있었다. 이중 고서적 마감은 옛날 선비들이 평소에 글씨 연습한 종이를 모았다가 초배지로 쓰기도 한(신영훈, 1993) 전통방식에서 유래한 것이라 여겨지

며 소포지는 누런색을 띄고 있으므로 흙을 바른 효과를 내고자 적용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일반벽지는 모두 차분한 상아색 계열에 무늬 없는 벽지가 쓰여지고 있어 이 또한 한지의 이미지를 고려한 선택이라 생각된다. 이로써 식음료 판매공간에 쓰인 종이벽은 전통 초가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난 재료의 적용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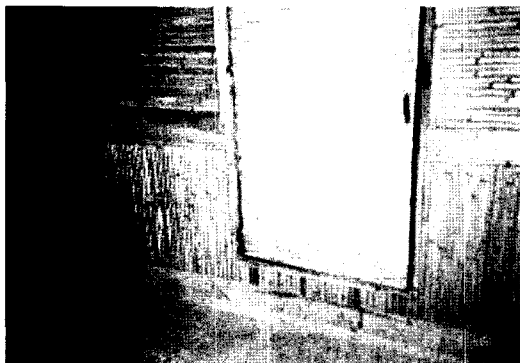
둘째, 회벽을 보면 회벽의 원형 도입은 3사례로 전통공간에서와 같이 모두 마루에서 나타났다. 원형 도입 회벽에서 인방에 쓰인 나무의 휘어짐이나 거친 정도는 매끄럽게 다듬은 나무로부터 별로 다듬지 않은 나무의 사용까지 제각각 나타났다. 이는 식음료 판매 공간의 모델로 삼은 초가의 유형이 막살이 초가인지, 어느 정도의 격식을 갖춘 초가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었는데 그 모델이 막살이 초가에 가까울수록 다듬지 않은 나무를 쓰고 있었다. 회벽의 변형 도입은 6사례로 홀에서만 4사례가 나타났는데 일반 시멘트 마감 위나 석고보드 위에 흰색 페인트를 바른 경우가 3사례, 핸드코트로 거친 질감을 나타낸 경우가 2사례였다. 이들 변형도입 회벽의 방법들은 모두 회벽과 유사하게 보이는 다른 재료들을 사용한 사례로서 그 중 흰색페인트는 표면이 많이 거칠지는 않았고 핸드코트는 표면의 질감이 일정한 무늬를 지니면서 거칠게 표현되어 있어 전통적인 초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재료였다. 그러나 질감의 표현이 일정한 무늬를 쓰거나 거칠지 않다면 초가 회벽의 이미지와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하겠다.

셋째, 흙벽을 보면 흙과 짚을 섞거나 흙으로만 마

<표 3> 벽의 마감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

구성요소	마감방식	원형도입			변형도입			계
		홀	방	마루	홀	방	마루	
벽	종이벽	1	6		4	8	1	20
	회벽			3	4	1	1	9
	흙벽	6	3	1	16	6		32
	통나무벽				3	1		4
	판장벽				2			2

감한 원형 도입은 10사례로 흠에서 많이 나타났고 인방에 쓰인 나무는 회벽의 예와 같았다. 흠벽의 변형 도입은 22사례로 이 역시 흠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황토와 백시멘트 그리고 접착제를 반죽하여 바른 경우가 11사례, 황토색 페인트를 칠한 경우가 8사례였고 흠벽의 구조에서 흠으로 메우기 전의 단계인 외대가 벽의 재료로 쓰인 경우가 3사례였다. 외대가 벽마감재화한 방식을 보면 벽에 대나무를 쪼개어 연속해서 붙이거나(2사례), 싸리나무 등의 재료를 엮어서 벽에 붙인 경우(1사례)로 실제 추가 벽의 구조를 그대로 마감재화 한 것이 아니라 대나무나 싸리나무를 촘촘히 붙여 모양만 낸 방식이었다.〈사진 3〉 한편 벽의 아래 부분은 돌과 흠으로 섞어 쌓고 윗부분을 흠만으로 마감한 경우도 1사례 있었다. 이로서 흠벽은 흠벽의 마감 방식을 원형으



〈사진 3〉 경기도 서종면 초기집



〈사진 4〉 경기도 장흥 까만골둑

로 또는 변형으로 도입한 경우와 마감이 아닌 흠벽의 구조에서 생성되는 과정을 마감재화 한 경우로 나눌 수 있었다.

넷째, 통나무벽을 보면 통나무를 우물정자로 쌓은 귀틀집의 원형은 없었고 통나무의 원통자체를 사용한 사례도 없었으며 통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붙인 변형 도입이 4사례 있었다. 반쪽 통나무를 붙인 양상을 보면 귀틀집의 통나무가 일정하게 가로로 놓인 것에 비해 세로로 붙이거나 사선으로 붙인 경우도 있었다.〈사진 4〉 이는 통나무를 쌓는 자체가 벽의 구조가 되는 공간은 없었다는 것이며 구조보다는 그 전체적 형태만을 모방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한편 이들 공간의 이미지는 한국적 귀틀집의 이미지보다는 외국의 통나무집의 이미지가 강하게 연상되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한국의 귀틀집은 통나무와 통나무 사이에 흠을 두껍게 채워 넣는 구성임에 비해 흠채움이 없이 통나무와 통나무가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다섯째, 판장벽을 보면 상인방과 하인방 사이를 판장으로 하고 중간에 가름대가 지나가는 것이 전통적이나 이러한 판장벽 또는 이에 준하는 판장벽은 찾아 볼 수 없었고 벽에 널빤지가 세로로 또는 가로로 연결되어 이어져 있고 중간에 가름대가 없는 변형도입 방식이 2사례 있었다.

3) 천장의 마감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

전통 주택의 천장은 그 구성에 따라 연등 천장, 샷갓천장, 반자천장으로 구분되며, 연등천장과 반자천장은 널리 알려져 있다. 샷갓 천장은 구조는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나 서까래 사이를 앙토하기전의 재료인 산자 상태 그대로 둔 삼량가의 집 천장을 말하며 오량가의 집 천장도 샷갓 천장이라 부르는지 확실치 않다(신영훈, 1993)고 한다.

식음료 판매공간에 적용된 초가의 천장은 연등천장 30사례, 반자천장 24사례였다. 먼저 연등천장을 보면 보, 도리, 서까래 등의 구성요소가 전통방식에 따라 구비되어 있는 원형 도입의 경우는 16사례로 각 공간에 골고루 적용되고 있었다. 반면 변형 도입은 14사례로 주로 흠에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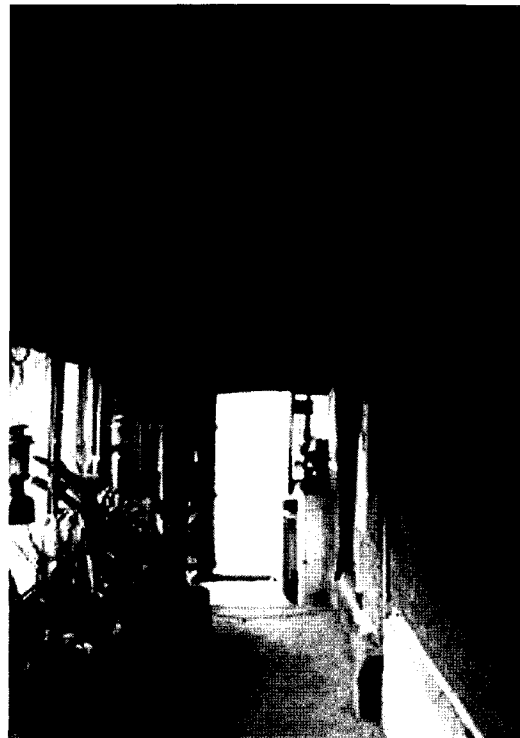
〈표 4〉 천장의 마감방식 및 원형도입 여부

구 성 요 소	마감방식		원형도입			변형도입			계	
			홀	방	마루	홀	방	마루		
천 장	연 등 천 장	흡 마 감	3	3	3	4			13	
		회 마 감	1	1	2	2			6	
		산 자 마 감	3			3	3	2	11	
	반 자 천 장	종 이 반 자	3	5		2	6		16	
		평 반 자	흡 마 감				1	1		2
			산 자 마 감				3	3		6

마감 방식은 서까래나 서까래 사이를 흡마감한 경우(13사례), 회마감한 경우(6사례), 산자마감한 경우(11사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이중 산자 마감의 경우는 샷갓천장에 속하는 마감 방식이나 그 구조가 연등천장과 같아 본 연구에서는 연등천장의 산자마감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보면 흡마감, 산자마감(사진 5), 회마감의 순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는 흡마감이나 산자마감이 회마감보다는 소박한 조가의 이미지에 보다 가깝게 부합되기 때문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실제 조사한 결과에도 회마감한 경우는 지붕만 풀로 이었고, 몸체는 기와집의 형식을 갖춘 공간이었다. 한편 연등천장의 변형은 첫째, 보가 없이 종도리와 서까래만 있는 경우가 7사례로 가장 많았고 연등천장의 구조는 갖추었되 각 부재의 굵기가 일정하므로서 전통 방식에서 벗어난 경우가 2사례, 연등천장의 종도리를 중심으로 경사진 2면의 서까래중 한면만 있는 경우가 3사례, 그리고 서까래는 없고 보와 도리, 대공만 있는 경우가 2사례였다. 이로써 연등천장의 변형은 구조자체와 부재 굵기의 변형, 그리고 전체 연등구조에서 반만을 취하는 등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었다.

둘째, 반자천장을 보면 종이반자 16사례, 평반자가 8사례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종이반자는 원형도입과 변형도입에서 골고루 적용되고 있었고 평반자는 변형도입으로만 적용되고 있었다. 종이반자의 원형도입은 8사례였고 변형도입 또한 8사례로 고서적으로 마감한 경우가 3사례, 일반벽지가 5사례 있었고 벽과는 달리 소포지 마감은 없었다. 평반자는 울거미를 짜 수평으로 설치하고 장마루를 짜듯이

널빤지나 반으로 조겐 나무를 써서 건너지른 것으로 마감은 나무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앙토로 싸바른 것 두 가지가 있다. 조사 대상 공간에서 널빤지를 건너지른 평반자의 원형도입은 찾아볼 수 없었고 변형도입은 홀과 방에서 각각 4사례씩 있었는데 그 중 흡마감이 2사례, 산자마감이 6사례였다. 즉 변형된 사례로 천장에 수평으로 각목 또는 가늘



〈사진 5〉 경기도 정흥 청솔



〈사진 6〉 서울 도읍지

고 긴 들보가 일정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설치되고 그 사이를 널빤지나 반으로 쪼갠 나무대신 산자로 마감하거나(사진 6) 흠으로 마감하는 방식이었다. 이들 흠마감이나 산자마감은 연등 천장의 구조에서 주로 나타났던 마감방식이었으나 현대에 와서 평반자에 응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4) 창문의 문양 및 원형도입여부

전통 주택에서의 창문은 그 구분이 엄격하지 못하여 창이 출입문의 구실을 겸하는 경우도 있다. 서민주택의 경우, 안방과 마루, 마루와 건넌방에는 분합문을 달지 않고 외쪽 지게문을 다는 것이 통례이다. 부엌과 광문에는 판장문을 달고 북쪽 벽에는 들

창을 달고 부엌에는 살창을 단다(주남철, 1994).

조사 대상 식음료 판매공간에서의 창문은 전통창문의 형식과는 무관한 현대적 유리통창이나 문이 30사례로 가장 많았고 띠살문 23사례, 아(亞)자문과 판장문이 각각 7사례, 완(卍)자문 5사례, 정(井)자문과 용(用)자문이 각각 6사례의 순으로 적용되고 있었다.(표 5) 여기에서 한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닥, 벽, 천장의 마감 방식 및 재료는 상당부분 전통 초기의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에 비해 창문에서는 현대적 유리통창문이 많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공간에서 19사례는 이러한 현대적 통창문과 전통창문이 함께 병행되고 있었고(사진 7) 11사례에서는 현대적 창문만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전통창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식음료 판매공간도 8사례였는데 이들은 대부분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따라서 방과 마루 등의 공간구성 내지는 배치가 식음료 판매공간에 알맞게 변형되었을 뿐 마감 방식이나 재료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업소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창문의 틀을 보면 알루미늄 새시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7cm이상의 두꺼운 나무틀을 써서 통유리문의 현대적 이미지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한 흔적을 볼 수 있었다. 그런가 하면 창문의 형태를 일그러뜨리거나 윗부분을 뾰족하게 올리므로써(사진 8) 실험적인 시도이긴 하였으나

〈표 5〉 창과 문의 문양 및 원형도입 여부

구성 요소	마감방식	원형도입			변형도입			계
		흠	방	마루	흠	방	마루	
창과 문	전통식	띠살문		14		9		23
		아자문		1		4		5
		완자문		2		5		7
		정자문		4		2		6
		용자문		1		5		6
		빗살문		4				4
		불발기문		12		2		14
		판장문		1				1
	현대식	유리통창 또는 문		30		30		
		French식 창 또는 문		6		6		



〈사진 7〉 경기도 동두천 토가



〈사진 8〉 경기도 금남리 초가집

전체적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형태도 있었다. 또한 French식 창문(창의 전면을 격자로 만든 후 작은 유리를 격자의 사이마다 끼워서 만든 창문)도 6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용(用)자나 정(井)자 창문살을 변형한 것이라 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용(用)자는 원래 살의 간격이 넓게 구성되어 있고 정(井)자는 촘촘히 구성되어 있는 것이 원형이므로 정자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용(用)자는 살의 가로와 세로의 비에서 세로가 길므로 이러한 비례의 창살로 된 창문은 용(用)자 창문의 변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가로:세로의 비가 같은 창문만을 French식 창문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창문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를 살펴보면, 띠살창문이 원형으로 적용된 사례는 14사례로 월등히 많았고 정자나 빗살도 그 숫자는 적었지만 원형으로 적용된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완(卍)자나 아(亞)자는 원형보다는 변형으로 적용되는 경향을 보

였다. 그 변형의 예를 보면 한지에 변형된 살이 끼워진 경우(2사례), 유리에 원형의 살이 끼워진 경우(4사례), 유리에 변형된 살이 끼워진 경우(4사례), 유리에 옛칭무늬의 살이 새겨진 경우(3사례)의 4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한편 창문은 현대의 식음료 판매공간에서 창이나 문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파티션이나 조명기구 또는 테이블의 상판 등에 두루 적용되고 있었는데 테이블의 상판에는 주로 띠살 창문 위에 유리로 덮어 사용하고 있었으며 파티션으로는 역시 띠살이 주였지만 아(亞)자 창문도 쓰이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에서 창문은 창문 자체의 변형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전통주택에는 창과 문으로 병행해 쓰이는 이들 창호 외에 출입문으로만 쓰이는 종류도 있었는데 식음료 판매공간에 쓰인 출입문은 판장문과 불발기문이 쓰이고 있었으며 모두 원형으로 적용되고 있었

다. 불발기문은 주로 상류주택의 마루와 방 사이에 사용되었던 문이었으나 의외로 출입문에 1사례 적용되고 있었고 판장문은 12사례가 있었는데 주출입구인 대문에 8사례, 화장실 문에 4사례가 나타났다.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가의 형식으로 지어진 식음료 판매 공간을 대상으로 현장방문 조사를 하여 전통초가 실내구성요소의 마감방식 및 재료가 현대의 공간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의 실태를 알아보려고 하였으며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닥의 마감방식 및 재료는 장판지바닥, 마루바닥, 흙바닥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변형의 사례를 보면 장판지 바닥은 대부분 장판지 무늬의 리놀리움 재료로 변형 도입되었고 마루바닥에서 우물마루는 원형이 그대로 쓰이는 사례가 많았으며 장마루는 원목이나 리놀리움으로 외국의 장마루 짜임방식이 많았다. 또한 흙바닥은 흙바닥의 원형을 쓰는데도 있었으나 시멘트나 돌로도 대체되고 있었다. 따라서 바닥은 우물마루 외에는 변형되어 도입되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변형의 범위는 전통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었다. 그러나 장마루는 외국의 마루짜임이어서 한국적 장마루 짜임방식으로 된 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우물마루는 상업적인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마감방식으로 이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진다면 우물마루의 전통을 손쉽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벽의 마감방식 및 재료는 종이벽, 회벽, 흙벽, 통나무벽, 판장벽으로 나눌 수 있으며 흙벽을 제외하고는 변형도입이 많았다. 그 변형의 사례를 보면 종이벽은 고서적, 소포지, 일반벽지 등이 한지의 대용으로 쓰였고 회벽은 흰색 페인트칠과 핸디코트가 주였으며 흙벽은 황토색 페인트 그리고 흙으로 마감하기 전단계인 외대를 쓴 경우가 많았다. 또한 통나무벽은 온 통나무가 아닌 반쪽 통나무를, 판장벽은 가름대 없이 널빤지만

가로나 세로로 또는 사선으로 일정한 틀이 없이 붙인 경우였는데 이는 벽의 마감방식 및 재료에서 변형의 범위가 전통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통나무벽, 판장벽은 흙벽의 외대, 즉 대나무나 갈대를 쪽내어 붙인 방식등과 더불어 전통초가의 자연스러움보다는 이를 어설피게 모방함으로써 오는 부자연스러움이 강조되어 보이는 사례들이었다. 따라서 이들 재료들을 붙이는 방식은 재고해 보아야 할 사항이다. 또한 회벽에서 핸디코트의 적용은 현대적 마감방식을 전통초가에 시도해 본 사례였으나 핸디코트를 바른면서 넣는 무늬의 결이 깊어 강하게 음영이 질 경우에는 초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므로 또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셋째, 천장의 마감방식 및 재료는 연등천장과 반자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연등천장은 원형도입이, 그리고 반자천장은 변형도입이 많았다. 연등천장의 변형사례를 보면 보가 없이 종도리와 서까래만 있는 경우, 연등천장의 구조를 갖추었되 그 굵기가 전통방식에서 벗어난 경우, 연등천장의 종도리를 중심으로 경사진 2면의 서까래중 1면만 있는 경우 등이었다. 한편, 반자천장은 종이 반자와 평반자로 나뉘어졌는데 종이반자는 한지 대신 고서적과 일반벽지가 주로 쓰였고, 평반자는 널빤지로 마감하던 전통방식과는 달리 연등천장에서 응용하여 산자나 흙으로 마감되고 있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초가의 전체적 분위기를 일그러뜨리지 않는 선으로 천장의 마감방식 및 재료는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었지만 비교적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넷째, 창과 문의 마감방식 및 재료는 전통창호의 방식으로 구성된 창 또는 전통창호의 형식과는 무관한 현대식 통창으로 바다, 벽, 천장, 창문의 4구성요소 중 유일하게 전통과는 무관한 현대식 마감방식이 많이 적용된 사례였다. 이는 창을 크게 내는 현대의 경향을 받아들인 결과라 생각되며 전통과는 거리가 먼 형태였음에도 몇몇의 창을 제외하고는 전체적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자칫 답답해 보일 수 있는 전통

초가의 외부와 내부를 개방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때도 있었다. 전통창문에서는 띠살창문과 판창문이 원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었으며 변형은 완(卍)자나 아(亞)자창문에서 많았다. 그 변형의 예를 보면 한지에 변형된 살이 있는 경우, 유리에 원형의 살이 있는 경우, 유리에 변형된 살이 있는 경우, 유리에 옛칭무늬의 살이 있는 경우로 다양하게 변형되고 있었으나 역시 전통창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띠살창문이 대표적이었다. 여기에서 한가지 명기할 사항은 창문을 변형한다고 하여 창문의 형태를 일그러뜨리거나 고딕창문의 이미지를 주는 등 전체 초가와 어울리지 않는 변형은 더 이상 시도되지 않아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초가의 지붕을 도입한 식음료 판매공간의 실내구성요소는 일단 전통에 기반을 두고 변형 또는 현대화하였는데 그 마감방식 및 재료는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이었다. 그러나 이의 적용에서 전체적으로 모든 요소가 바람직하게 구성된 공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전통의 마감방식을 어설프게 모방하거나 각종 전통 재료를 무절제하게 늘어놓는 경향이 많아 초가의 소박하고 담담한 분위기와 거리가 먼 공간이 많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전통의 계승 내지는 현대화하려는 노력의 결과에서 생기는 문제이므로 전통의 현대화라는 큰 명제 아래에서 보면 거쳐야 할 시행착오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들 전통공간의 현대적 적용은 어떠한 형태로든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때 잊지 말아야 할 사항은 전

통초가를 현대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전통초가의 소박하고 담담한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디자이너나 학자들이 전통초가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조사 및 방향설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시행착오적인 디자인을 수정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을 보다 굳건히 간직하고 또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광언(1988),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 2) 김홍식(1992), 한국의 민가, 한길사
- 3) 김홍식외(1991), 한국기층문화의 탐구-초가, 열화당
- 4) 박영순외(1998), 우리 옛집 이야기, 열화당
- 5) 신영훈(1983),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6) 오혜경, 성미현(1998), 전통주택실내구성요소의 현대적 계승사례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지, 17호 1998, 12월
- 7) 윤원태(1998), 한국의 전통초가, 도서출판 채원
- 8) 이종엽(1995), 한국 실내 건축에서 전통성 고찰과 수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장보운(1981), 한국의 민가의 연구, 보진재
- 10) 주남철(1994), 한국 주택 건축, 일지사
- 11) 주남철(1997), 한국 건축 의장, 일지사
- 12) 홍진경(1986), 전통주택의 실내 마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